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5. 9. 4.(목) 15:00

코엑스에 이어 명동, 해운대, 광화문에서 옥외광고의 새 시대를 만난다

- 9월 5일(금) 광화문광장에서 ‘광화문스퀘어’ 점등행사 개최
- 2023년 12월 지정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, 모두 본격 가동
- 자유표시구역이 옥외광고 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3년 말 지정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 -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크기, 모양, 설치방법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시범구역이다.
 - 「옥외광고물법」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고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.
 -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,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,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이 유명한 해외 유사 사례다.
-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서울 코엑스 일대가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었고, 2023년 12월에는 서울 광화문광장, 서울 명동관광특구, 부산 해운대해변이 제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.
 -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지난해 11월 명동관광특구를 시작으로, 올해 6월 부산 해운대해변이 문을 열었고, 마지막으로 9월 5일(금) 광화문광장이 공식 점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모든 구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.
- 자유표시구역은 그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초대형, 고화질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옥외광고를 통해 새로운 도시 명소를 만들고, 옥외광고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.

- 특히, 3D 입체 착시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옥외광고(DOOH, Digital Out Of Home)는 정보통신기술(ICT),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옥외광고와 관련된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.

< 구역별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특징 >

- (코엑스 자유표시구역) 2016년 처음 지정된 서울 코엑스 자유표시구역(약칭: 강남아이스)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돼, 현재 20기의 광고물이 설치·운영되고 있다.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의 분석에 따르면, 지정 후 5년간(2018년~2022년) 40여 개의 대·중·소 기업이 참여해 총 1,57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.
- 한편, 2024년 12월 말에 일주일간(2024.12.19.~12.25.) 개최된 ‘서울 미디어아트페스티벌’에는 12만 7천여 명이 방문하며 코엑스 일대를 ‘한국판 타임스스퀘어’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.
- 아울러,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기 자유표시구역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.
- (명동 자유표시구역) 명동관광특구 자유표시구역(약칭: 명동스퀘어)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세계백화점(본점) 외벽에 1,292㎡의 대형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다.
- 신세계백화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, 광고물 운영 2개월(2024년 11월~12월)만에 100만 여명 이상이 백화점을 방문했고,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%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.
- 특히,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 내 글로벌 트래픽이 늘어났으며, 2025년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3D 아나몰픽 기법*을 활용한 첨단 미디어 아트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의 ‘레드닷 디자인 어워드(Red Dot Design Award)’에서 4개의 상**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.

* 착시효과를 통해 입체감 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

** 크리스마스 캠페인, 순종어차의 중구 순례, 타임리스 모먼트, 음악가의 수트케이스

○ 명동스퀘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 인증 명소, K-컬처 체험지로 인기를 끌며 명동관광특구일대를 포함한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□ (해운대 자유표시구역) 해운대해변 자유표시구역(약칭: 해운대스퀘어)에는 올해 6월 20일부터 그랜드조선 부산 호텔 외벽에 766m²의 대형 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다.

○ 최근 해운대 해수욕장의 실제 구조대원을 모델로 한 ‘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 가드’ 영상*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에서 큰 화제가 돼, 미디어아트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지역의 상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
* 구조대원이 해양 기상 데이터, 파고, 인파 밀집도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별 안전지침을 입체적으로 송출

□ (광화문 자유표시구역) 9월 5일(금)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광화문광장 자유표시구역(약칭: 광화문스퀘어)은 선정 당시부터 역사·문화·관광, 과거·현재·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으로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.

○ 광화문스퀘어에는 현재 코리아나호텔 외벽에 1,303m², KT 사옥 외벽에 1,770m²의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.

○ 광화문광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생생한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또한,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경복궁, 덕수궁 같은 주변 문화유산과의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광화문스퀘어는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 향후 자유표시구역 운영계획 >

- 행정안전부는 자유표시구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계획된 모든 광고물이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, 관계부처,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명동스퀘어는 올해 말까지 교원빌딩 외벽 전광판과 남대문로·명동길 일대에 56기의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백화점 영플라자, 신세계백화점(신관), 하나은행 등 외벽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해 명동관광특구 전체를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만들 예정이다.
- 해운대스퀘어는 내년까지 해운대해변 이벤트광장에 미디어타워와 구남로 일대에 14기의 미디어 폴을 설치해 비수도권 최초 자유표시 구역으로서 지역 차원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.
- 광화문스퀘어는 올해 말까지 동아미디어센터와 국호빌딩 외벽 전광판을 설치하고, 내년까지 교보빌딩 등에도 추가로 설치해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역사성과 현대적 미디어아트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.
- 김민재 차관은 “제2기 자유표시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은 우리나라 옥외광고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,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옥외광고 산업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	책임자	과 장	박희건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권순관 (044-205-3533)



참고 1

서울 광화문광장 자유표시구역(광화문스퀘어) 현장사진

KT WEST 사옥 광고물 예상도(9.5. 점등행사)



광화문스퀘어 광고물 설치계획('24.~'29년)



참고 2

서울 코엑스 자유표시구역(강남아이즈) 현장사진

서울 코엑스 자유표시구역(강남아이즈) 전경



2024 서울미디어아트페스티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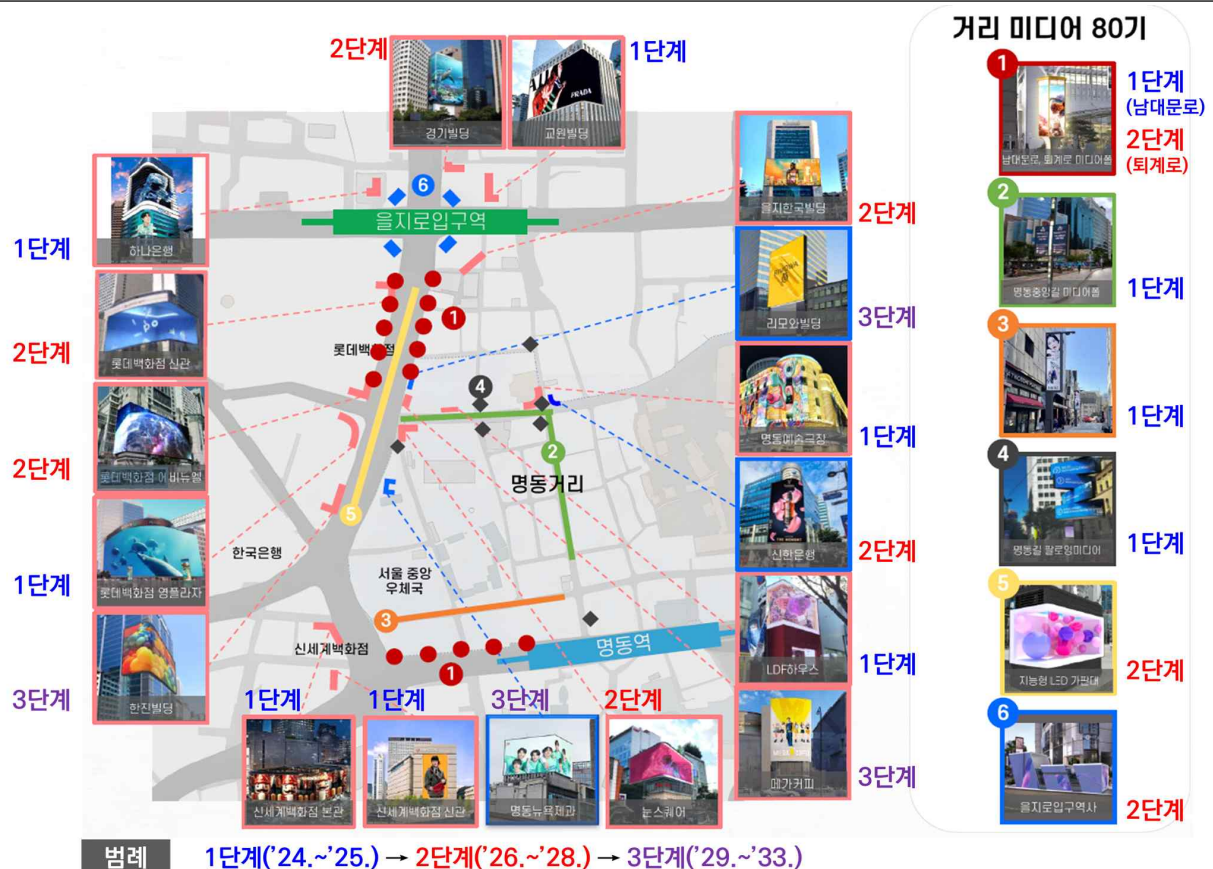


서울 명동관광특구 자유표시구역(명동스퀘어) 현장사진

신세계백화점(본관) 외벽 전광판 - 순종어차의 종구 순례



명동스퀘어 광고물 설치계획('24.~'33년)



부산 해운대해변 자유표시구역[해운대스퀘어] 현장사진

그랜드조선 부산 호텔 전광판 - 『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 가드(구조대원)』



해운대스퀘어 광고물 설치계획('24.~'26년)

